[Volume No.428]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28

November 22,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7
Tankers	11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Issue & Trend	20
Contact Details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NEWS

1. 오일과 가스 해운시장, 너무 뜨겁다…원유수송선 일일운임 전 선종 10 만 달러 돌파

신조선가 지수는 전주 대비 하락했고 중고선가 지수는 상승했다. 오일과 가스 해운시장이 뜨거웠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주(11 월 18 일) 신조선가 지수는 전주대비 0.25 포인트 상승한 162.16P 를 기록했다. 선종별 상세선가를 보면 탱커는 변동이 없었고 벌커 가격은 하락했다. 벌커 케이프사이즈, 파나막스, 핸디막스, 핸디사이즈는 각각 25 만달러씩 내렸다. 컨테이너선 중 1 만 3000TEU 급은 1 백만달러 떨어졌다.

신조선 수주량은 오일탱커 5 척, 드라이벌크선 10 척, 컨테이너선 1 척, 로로선 1 척, 해양지원선 1 척 등 총 18 척이며, 누적기준으로 1174 척을 기록했다. 2021 년 46 주차는 누적 수주량이 1502 척이었다.

중고선가 지수는 전주대비 0.13 포인트 상승한 164.62P 를 기록했다. 거래척수는 절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거래대금은 전년대비 24.1% 많았다. 선종별 상세선가는 변동이 없었다. 운임 강세에 힘입어 무섭게 오르던 탱커도 변동이 없었다. 신조선가 보다 높은 중고선가를 모두 반납한 컨테이너선도 중고선가 하락세가 주춤했다.

중고선은 한 주간 총 44 척이 거래됐으며 46 주 누적기준으로 총 2081 척이 거래됐다. 2021 년 같은 기간 누적기준 거래량은 2126 척이었다.

탱커운임 중 VLCC 어닝은 22.2% 상승한 10 만 6137 달러, 수에즈막스급은 31% 오른 10 만 5336 달러, 아프라막스급은 38.7% 상승한 11 만 3539 달러, MR 탱커는 33.7% 오른 4 만 2855 달러, 핸디사이즈급은 10.4% 상승한 6 만 833 달러를 기록하며 전선종이 강세를 보였다.

벌크선운임지수 BDI 는 전주대비 12.3% 하락해 1189P 를 기록했다. 대형선 운임 약세가 큰 편이었다. 에코선형과 비에코선형의 운임차는 극심하다.

가스선의 경우 84K(8 만 4 천)급 LPG 선 운임은 전주대비 13.9% 상승한 12 만 8564 달러, 160K(16 만)CBM 급 LNG 선 운임은 전주대비 0.5% 하락한 44 만 5259 달러를 기록했다.

11 월 18 일 주 컨테이너선 운임은 SCFI 가 전주대비 9.5% 하락해 1306.84P, CCFI 는 4.5% 하락한 1651.26P 를 기록했다. 연내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Ⅰ. NEWS

한편 싱가포르 기준 저유황유는 전주대비 1.9% 하락한 678 달러, 고유황유는 전주대비 3.0% 상승한 433 달러를 기록했다.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가격차(싱가포르 기준)는 톤당 245 달러로 전주대비 26 달러 축소됐다. 톤당 100 달러 이상의 갭은 대형선 기준 스크러버 투자 비용을 3 개년 이내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2. 조선업계 "LNG 선 다음은 암모니아선"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수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소를 해상 운송할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2030 년까지 매년 20 척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액화천연가스(LNG)선을 이을 한국 조선사들의 새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기대했다.

수소 운반, 2030 년까지 매년 20 척 필요

21 일 맨체스터 대학의 틴달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2030 년까지 매년 20 척의 새로운 암모니아 추진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소는 암모니아로 합성해 저장, 운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암모니아선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틴달 센터는 이집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30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5000 만~1 억 5000 만 T 의 저탄소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될 국가는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선박을 통한 운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면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LNG 는 친환경 선박에 해당하지만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발생해 IMO 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IMO 는 선박 운항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2008 년 대비 2030 년까지 40%, 2050 년까지 70%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건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암모니아는 금속을 잘 부식시키고 독성을 지녀 이를 고려한 설계가 암모니아선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영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을 위해서는 저온을 유지하는 기술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암모니아는 독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관하는 기술도 요구된다"고 했다.

Ⅰ. NEWS

조선 3 사, 암모니아선 기술 개발 박차

국내 조선 3 사는 2025 년 상용화를 목표로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뛰어 들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 월 미국선급(ABS)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고, 한국선급(KR)으로부터도 암모니아 운송·추진 가스운반선(VLGC)에 대한 개념설계 기술을 인증받은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 인증을 KR 로부터 획득하고 지난 9 월 가스텍에서 6 만·4 만㎥급 암모니아추진·운반선을 ABS 로부터 인증 받았다.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형유조선(VLCC),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 등에서 고부가가치 원천 기술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3. "환율 안정됐고 자금경색 부담"...한은 24 일 '베이비스텝' 전망

한국은행이 오는 24 일 금리 인상 폭을 줄여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아닌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만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1%포인트(P)에 이르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탓에 사상 첫 6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데다 채권 등 자금시장 경색 위험도 남아 있어 10 월에 이은 연속 빅 스텝은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수출·소비 둔화 추세 등을 반영해 내년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기존 2.1%에서 1.7~2.0%까지 낮출 것으로 봤다.

◇ 사상 첫 6 연속 인상 불가피...5%대 물가에 한·미 금리차도 1%P

20 일 연합뉴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4 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대로라면 한은 역사상 첫 여섯 차례 줄인상(4·5·7·8·10·11 월)이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Ⅰ. NEWS

10 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 월(6.3%) 정점 이후 8 월(5.7%), 9 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지난 2 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00%P 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물가만 놓고 본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크다"며 "더구나 연준이 12 월에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 연속 빅 스텝은 피할 듯...환율안정·자금경색·경기충격 고려

다만 금리 인상 폭의 경우 10 월과 같은 0.50%P 가 아니라 0.25%P 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최근 1,300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채권시장 등의 자금·신용 경색 위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갈수록 뚜렷해지는 경기 하강 추세 등이 베이비 스텝 전망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은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며 "최근 환율은 안정화 단계에 있다. 과거 원/달러 환율은 1,050~1,250 원 범위에서 움직였고, 1,300~1,400 원대 환율은 국가 부도 사태 등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적정 환율 수준인 1,250 원 밑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경영연구원은 "10 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7.7%)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12 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나 최종 금리 상단 수준, 인하로의 전환 시기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미국의 통화 긴축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고, 한은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나타난 채권시장, 자금시장의 불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베이비스텝에 무게를 뒀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경기도 빠르게 동력을 잃어가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며 "한은으로서는 빅 스텝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지난달 12 일 빅 스텝 결정 당시에도 금통위원 2 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베이비 스텝'에 표를 던진 바 있다. 둘 중 한 위원은 "기조적 고인플레이션 흐름에 대응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Ⅰ. NEWS

바람직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후반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한은, 내년 상반기 최고 3.75%까지 더 올릴 것"

실제로 이달 한은이 베이비 스텝에 머물면, 한국(3.25%)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P 로 좁혀진다. 하지만 12 월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P 로 다시 확대된다.

더구나 연준이 시장의 전망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더 끌어올릴 경우, 한은도 비슷한 시점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정점은 5%대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한은 역시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적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유지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3.5% 수준에서 끝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고,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LG 경영연구원도 "한은이 11 월에 0.25P 에 이어 내년 상반기 두 차례 정도 0.25%P 씩 더 올려 한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3.7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1 분기까지 이어지고, 최종 금리는 3.50~3.75%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키움증권도 "연준의 최종금리가 5.25%에 이르고, 한은도 내년 1 분기 3.7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 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예상대로 오는 12 월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전환 고려는 "매우 시기상조"라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면모도 동시에 보였다.

◇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1%대 후반으로 낮출 가능성

한은은 24 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함께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7~2.0%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2.1%(8 월 전망치)보다 0.1~0.4%P 낮을 뿐 아니라, 2020 년 역(-)성장 이후 최저 수준이다. LG 경영연구원은 "우리는 내년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한은은 2% 아래로 많이 낮추지는 못하고, 1%대 후반 정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Ⅰ. NEWS

또한 "내년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데다, 소비도 기대만큼 좋아지기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로 미뤄 건설투자도 부진할 텐데, 그렇다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기대할 수 없다. 경기가 좋아질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내년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1.7~1.8% 정도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가 가라앉으면 물가 압력도 줄어드는 만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도 기존 3.7%보다 0.1~0.2%P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무라증권은 3.6%, 한국금융연구원은 3.5%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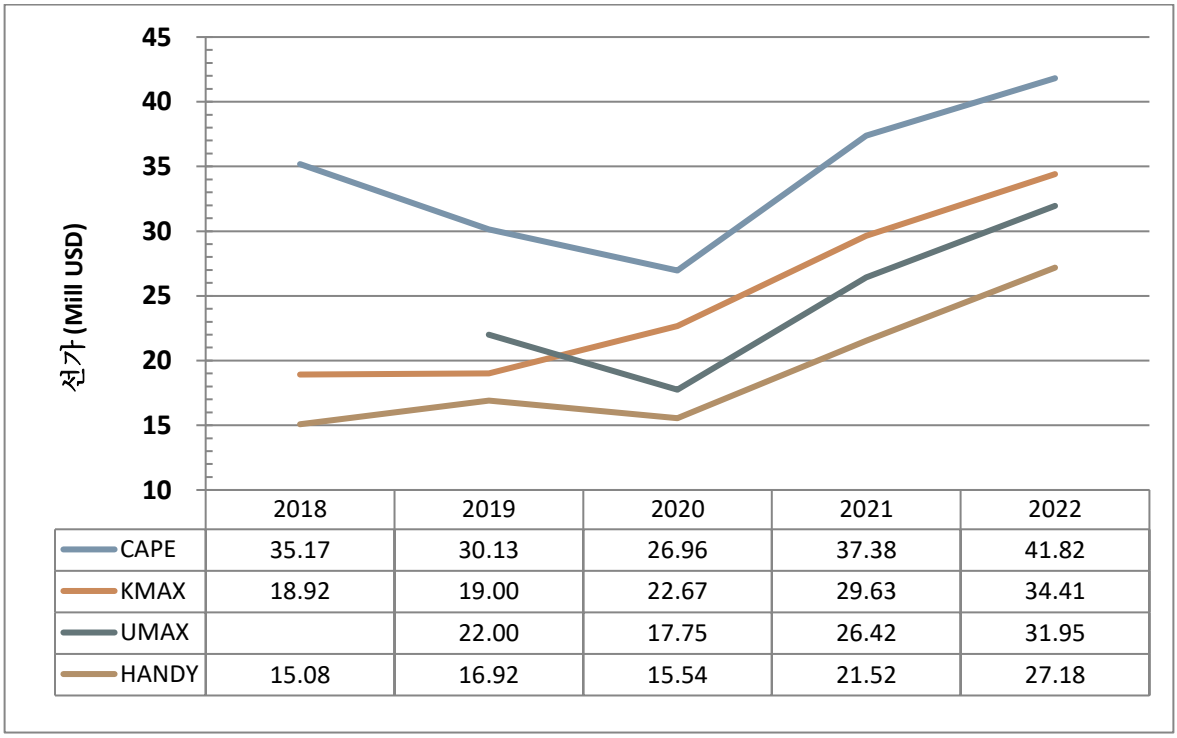
Ⅱ.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1.82
	11.20%	-14.34%	-10.51%	38.64%	11.89%
Kamsarmax 82K 76K (~2019)	18.92	19.00	22.67	29.63	34.41
	6.82%	0.42%	19.30%	30.70%	16.13%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1.95
			-19.32%	48.83%	20.96%
SMAX 58K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32K (~2018)	15.08	16.92	15.54	21.52	27.18
	9.37%	12.18%	-8.13%	38.47%	26.30%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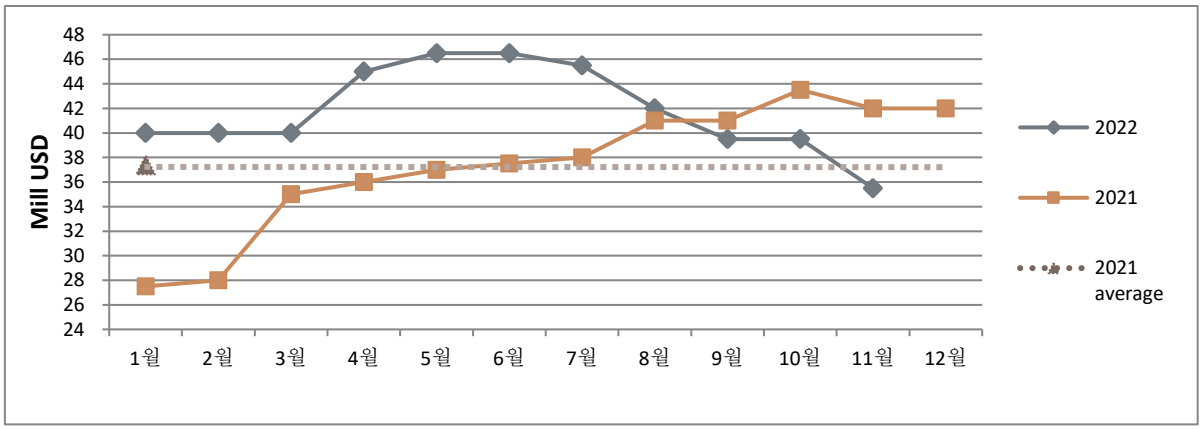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	35.17	30.13	26.96	37.38	41.82
KMAX	18.92	19.00	22.67	29.63	34.41
UMAX		22.00	17.75	26.42	31.95
HANDY	15.08	16.92	15.54	21.52	27.18

Ⅱ. BULK CARRIER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5.00	46.50	46.50	45.50	42.00	39.50	39.50	35.50	41.82
	전월대비	-4.8%	0.0%	0.0%	12.5%	0.0%	3.3%	-2.2%	-7.7%	-6.0%	0.0%	-10.1%	--
	전년대비	45.5%	42.9%	14.3%	25.0%	24.0%	25.7%	19.7%	2.4%	-3.7%	-9.2%	-15.5%	11.9%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3.00	31.00	31.00	31.00	34.41
	전월대비	3.0%	1.5%	2.9%	2.8%	0.0%	4.1%	-5.3%	-8.3%	-6.1%	0.0%	0.0%	--
	전년대비	41.7%	38.0%	31.5%	35.2%	28.8%	35.7%	18.0%	4.8%	-6.1%	-11.4%	-3.1%	16.1%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4.00	34.50	34.00	33.00	31.50	30.00	30.00	28.50	31.95
	전월대비	1.7%	6.6%	1.5%	3.0%	1.5%	0.0%	-4.3%	-4.5%	-4.8%	0.0%	-5.0%	--
	전년대비	52.5%	58.5%	46.7%	51.1%	30.2%	41.7%	15.8%	5.0%	-3.2%	-4.8%	-5.0%	21.0%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7.00	26.00	24.50	24.00	27.18
	전월대비	7.8%	1.8%	0.0%	1.8%	0.0%	0.0%	0.0%	-5.3%	-3.7%	-5.8%	-2.0%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9.0%	42.5%	26.7%	12.5%	6.1%	-3.9%	-5.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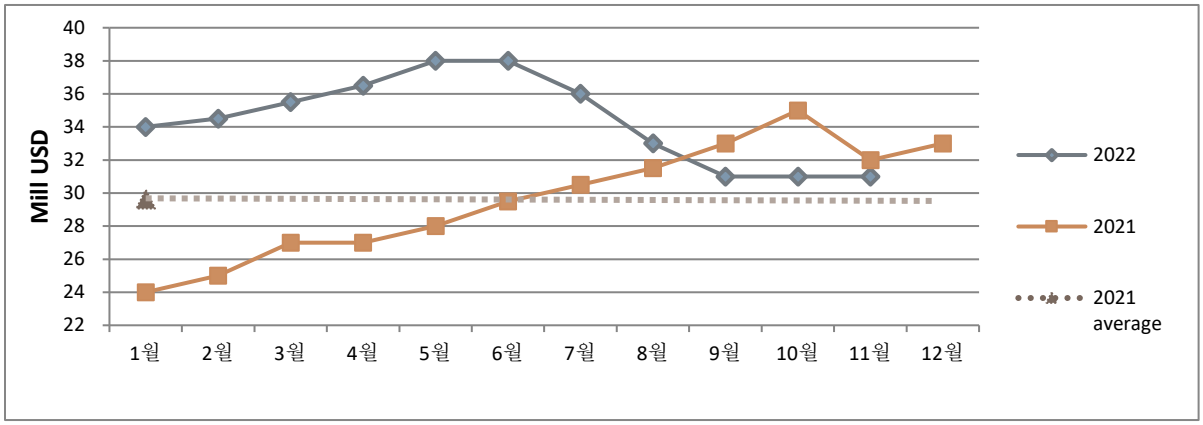
2021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8.00	41.00	41.00	43.50	42.0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30.50	31.50	33.00	35.00	32.0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8.50	30.00	31.00	31.50	30.0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2.50	24.00	24.50	25.50	25.50	21.5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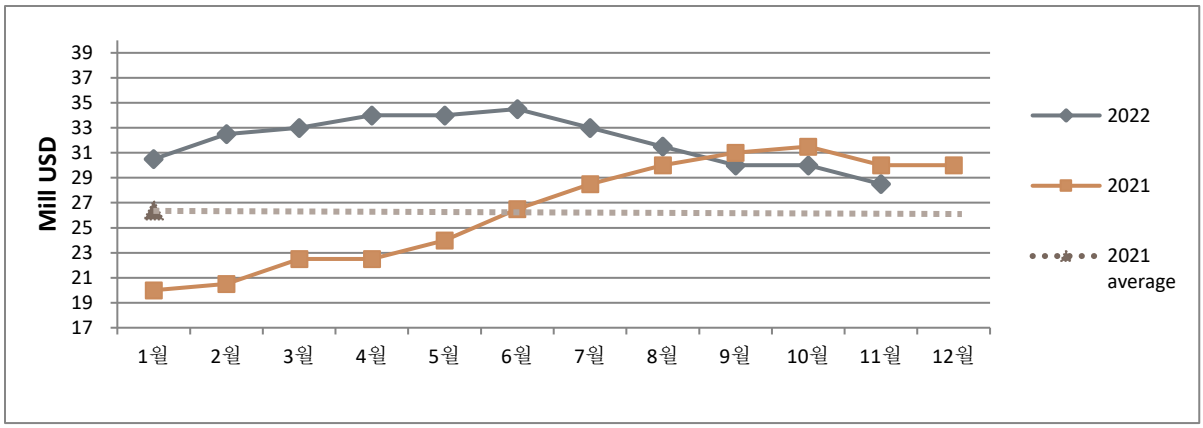


Ⅱ.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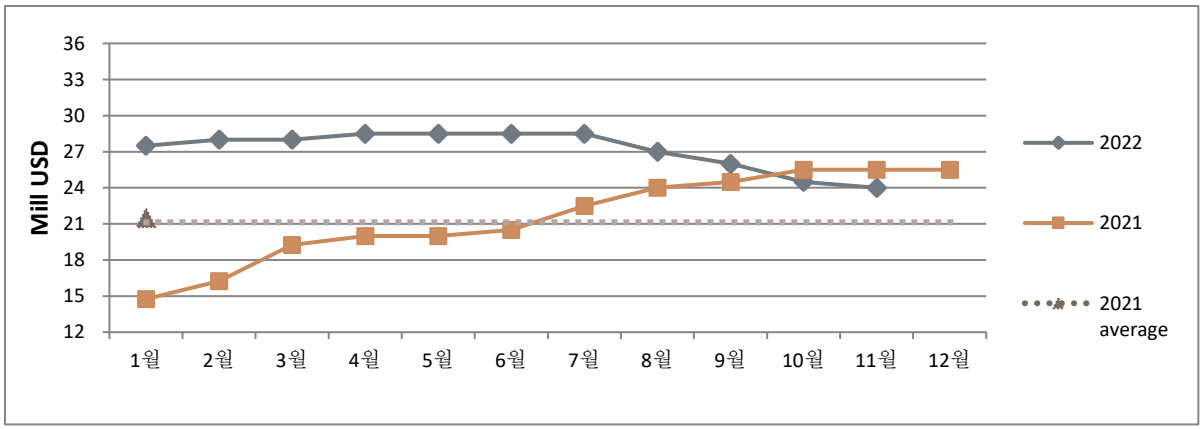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CHINA STEEL ENTREPRENEUR	203,512	2007	CHINA	B&W		35.5-2EB	Greek buyer (Alberta Shipmanagement)
BC	CHINA STEEL TEAM	203,512	2006	CHINA	B&W			
BC	STAR ENERGY	180,310	2004	JAPAN	B&W		14	Undisclosed buyer
BC	CHS SPLENDOR	170,000	2006	JAPAN	SULZER		15.5	Undisclosed buyer
BC	ULTRA PANACHE	78,450	2011	JAPAN	B&W		17	Undisclosed buyer
BC	ACHILLEAS	63,500	2012	CHINA	B&W	C 4x35t	22.3	Far Eastern buyer
BC	ZILOS	46,541	2000	JAPAN	SULZER	C 4x30t	--	Turkish buyer
BC	SEASTAR HARRIER	39,804	2022	JAPAN	B&W	C 4x30t	30.9	Janaese buyer
BC	SUPER CAROLINE	33,427	2007	JAPAN	MITSU	C 4x30t	13.7	Turkish buyer, OHBS
BC	PENELOPE T	32,376	2011	KOREA	B&W	C 4x30t	14.3	Undisclosed buyer
BC	MARIA GS	28,378	2011	JAPAN	B&W	C 4x30.5t	--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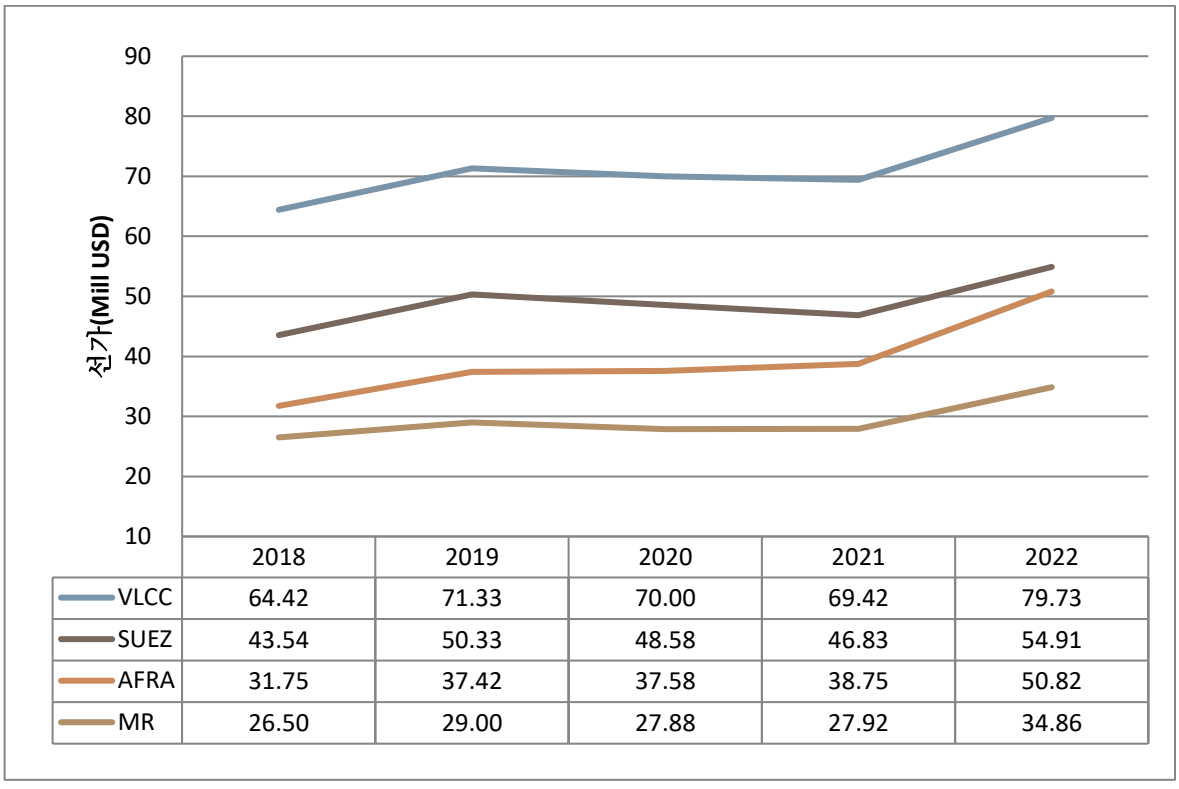
Ⅲ.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79.73
	2.11%	10.73%	-1.87%	-.83%	14.85%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54.91
	5.45%	15.60%	-3.48%	-3.60%	17.24%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50.82
	4.81%	17.85%	0.45%	3.10%	31.14%
MR (51K) *'18 년까지는 49K 기준	26.50	29.00	27.88	27.92	34.86
	11.38%	9.43%	-3.88%	.15%	24.88%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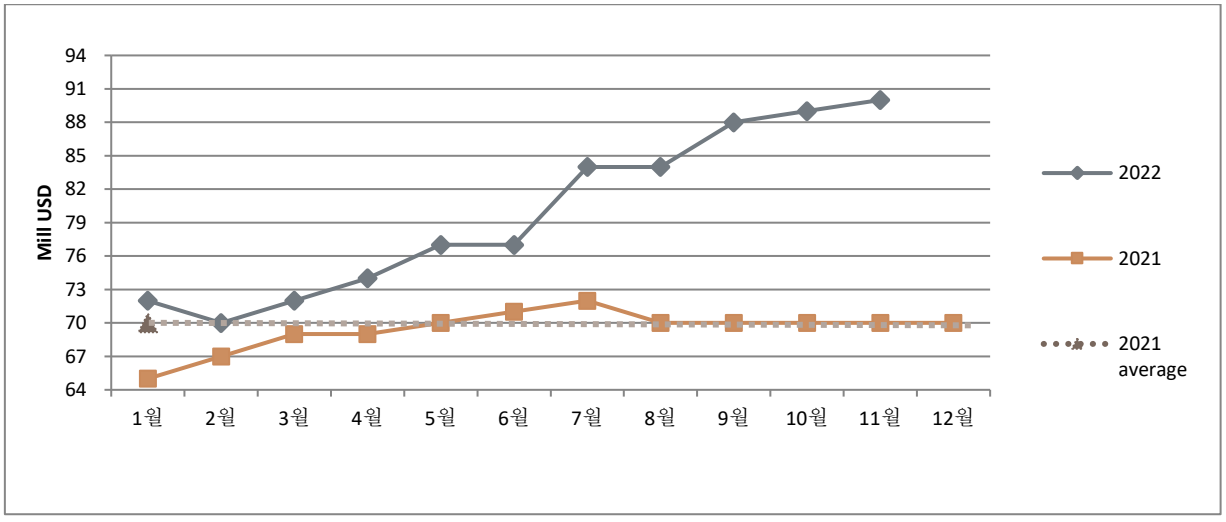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64.42	71.33	70.00	69.42	79.73
SUEZ	43.54	50.33	48.58	46.83	54.91
AFRA	31.75	37.42	37.58	38.75	50.82
MR	26.50	29.00	27.88	27.92	34.86

Ⅲ. TANKER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4.00	88.00	89.00	90.00	79.73
	전월대비	2.9%	-2.8%	2.9%	2.8%	4.1%	0.0%	9.1%	0.0%	4.8%	1.1%	1.1%	-
	전년대비	10.8%	4.5%	4.3%	7.2%	10.0%	8.5%	16.7%	20.0%	25.7%	27.1%	28.6%	13.9%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9.00	62.00	62.00	62.00	54.91
	전월대비	2.1%	-2.1%	4.3%	4.1%	2.0%	3.8%	7.4%	1.7%	5.1%	0.0%	0.0%	-
	전년대비	9.1%	9.3%	8.9%	8.5%	9.5%	11.3%	18.4%	22.9%	29.2%	29.2%	31.9%	13.0%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4.00	57.00	57.00	58.00	50.82
	전월대비	9.8%	0.0%	0.0%	4.4%	4.3%	0.0%	8.2%	1.9%	5.6%	0.0%	1.8%	-
	전년대비	36.4%	36.4%	21.6%	17.5%	22.5%	22.5%	32.5%	35.0%	42.5%	42.5%	41.5%	35.2%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40.00	40.00	39.00	39.00	34.86
	전월대비	3.4%	0.0%	-3.3%	12.1%	3.1%	0.0%	10.4%	8.1%	0.0%	-2.5%	0.0%	-
	전년대비	9.1%	9.1%	5.5%	18.2%	21.8%	21.8%	32.1%	42.9%	42.9%	39.3%	34.5%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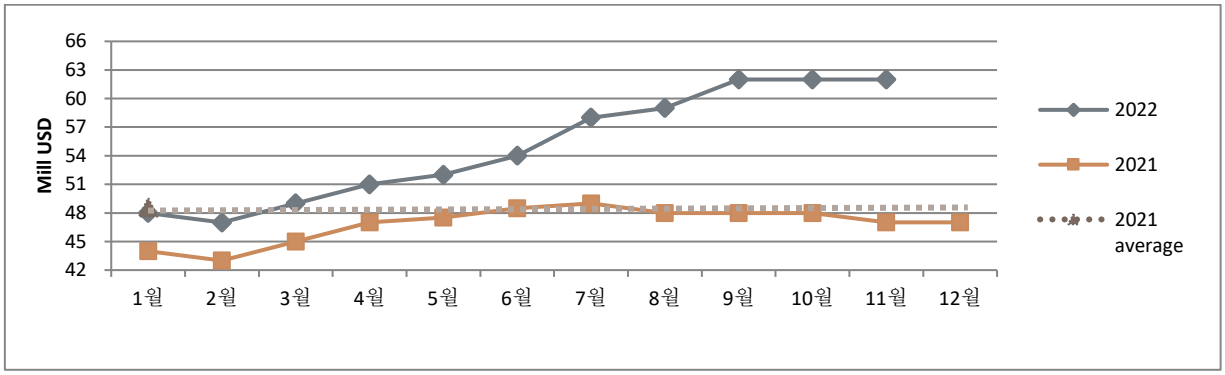
2021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1.00	70.00	70.00	70.00	70.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0	48.00	48.00	48.00	47.0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1.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8.00	28.00	28.00	29.00	27.8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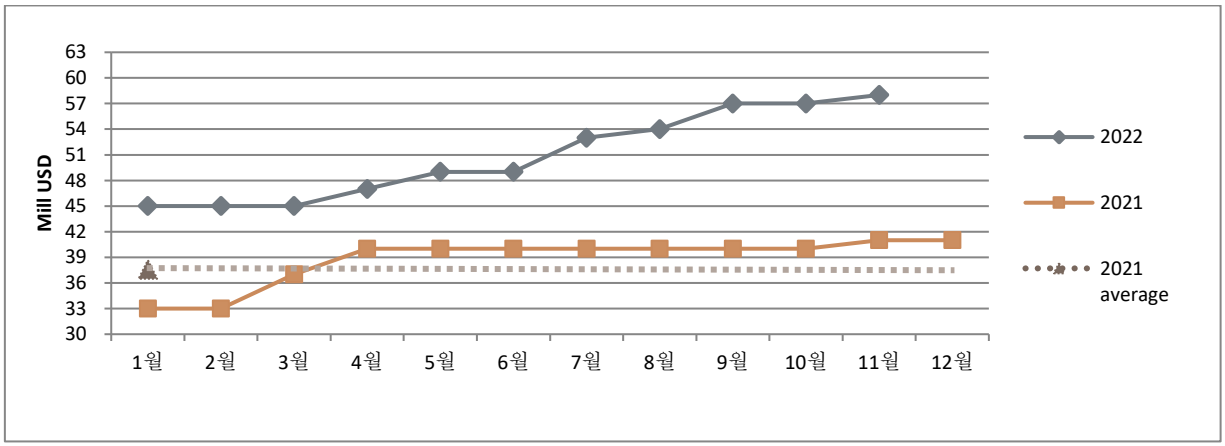


Ⅲ.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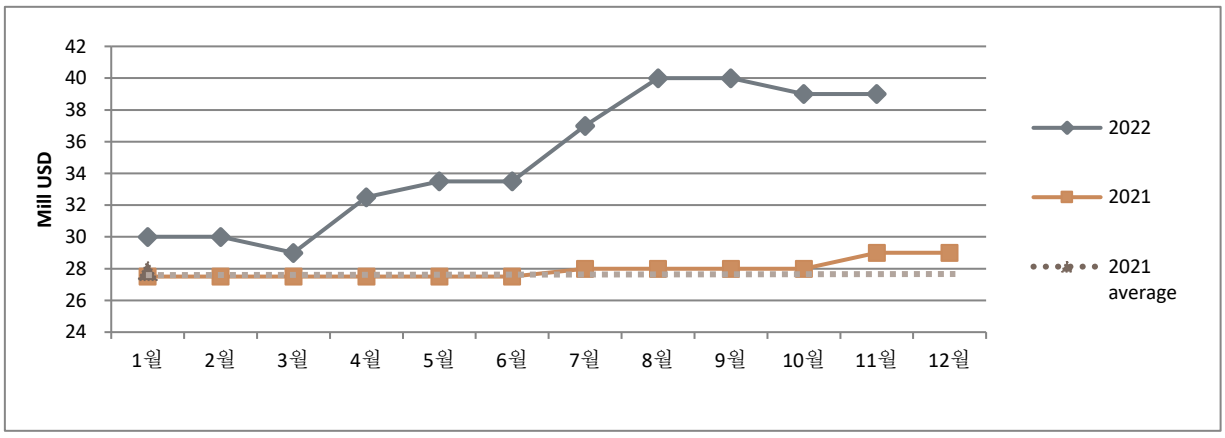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ELANDRA EVEREST	300,000	2020	KOREA	B&W		107.5	UAE buyer
TANKER	MARIA GRACE	160,289	2002	KOREA	B&W		22.5	Turkish buyer, epoxy coated
TANKER	SIFIS	105,827	2007	JAPAN	B&W		32.2	Undisclosed buyer
TANKER	FOS HAMILTON	105,408	2013	KOREA	B&W		43.75	Greek buyer (Performance Shipping), eco-engine, epoxy coated
TANKER	NORDNEPTUN	74,999	2004	KOREA	B&W		15.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PGC IKAROS	72,829	2004	CHINA	B&W		12.25	Turkish buyer, epoxy coated
TANKER	CAPE GUINEA	37,554	2008	JAPAN	B&W	3	16.4	Greek buyer, epoxy coated
OIL/CHEM	CAPE TAMPA	73,400	2009	CHINA	B&W	3	20.2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ATHLOS	50,034	2016	CHINA (KOR)	WART		41	Undisclosed buyer, eco-engine,epoxy coated
OIL/CHEM	VALLERMOSA	40,218	2003	KOREA	B&W	3	12	Chinese buyer, epoxy coated
OIL/CHEM	PERSEUS N	36,264	2009	KOREA	B&W		--	Turkish buyer, epoxy coated, ice class 1A
LPG	G DANCER	4,686	1996	UK	MAK	LPG	--	Middle Eastern buyer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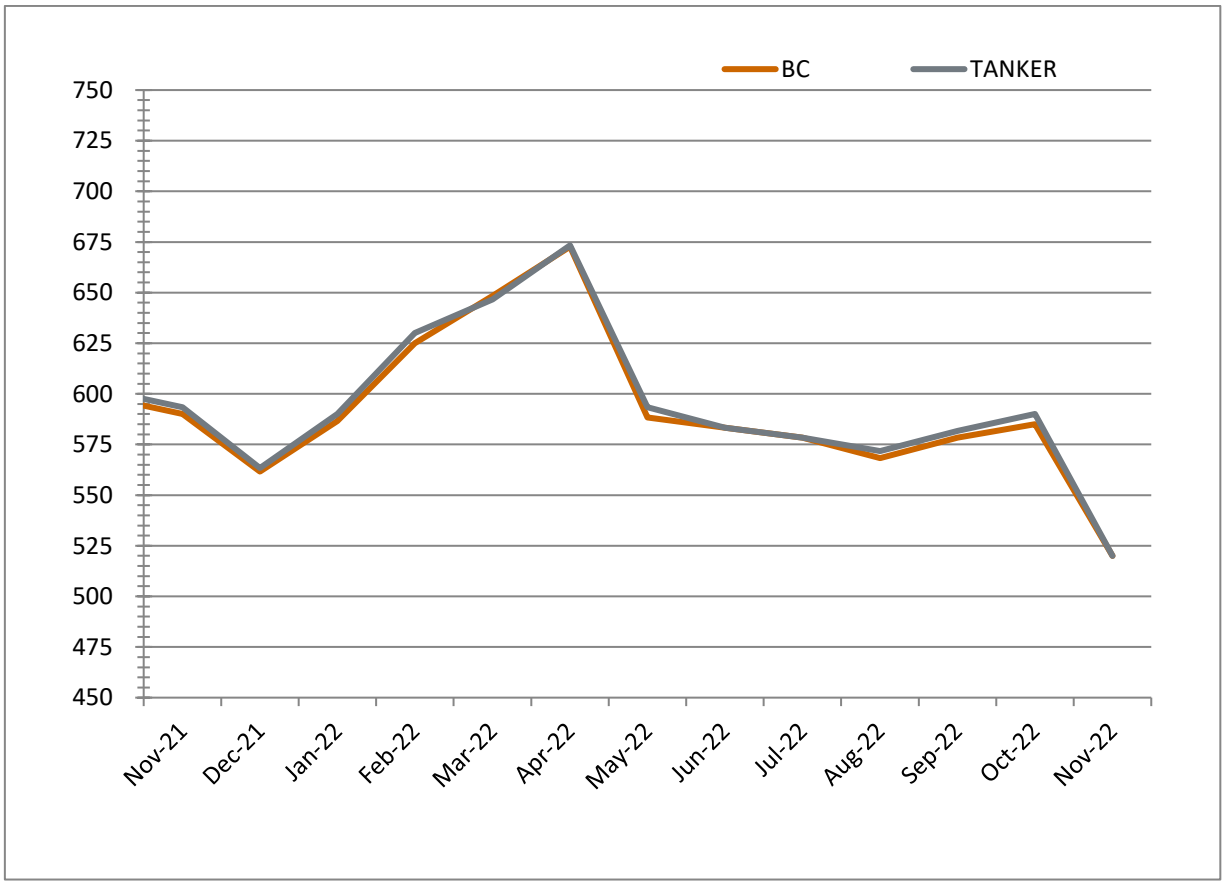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TLANTIC BRIDGE	8,691	2007	GERMANY	MAK	724	TEU	19.8	Undisclosed buyer

Ⅳ.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11	2022.11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596.21	13.2%	593.33	520.00	-11.9%	-12.4%
BC	344.58	-13.6%	529.17	53.6%	594.03	12.3%	590.00	520.00	-11.1%	-11.9%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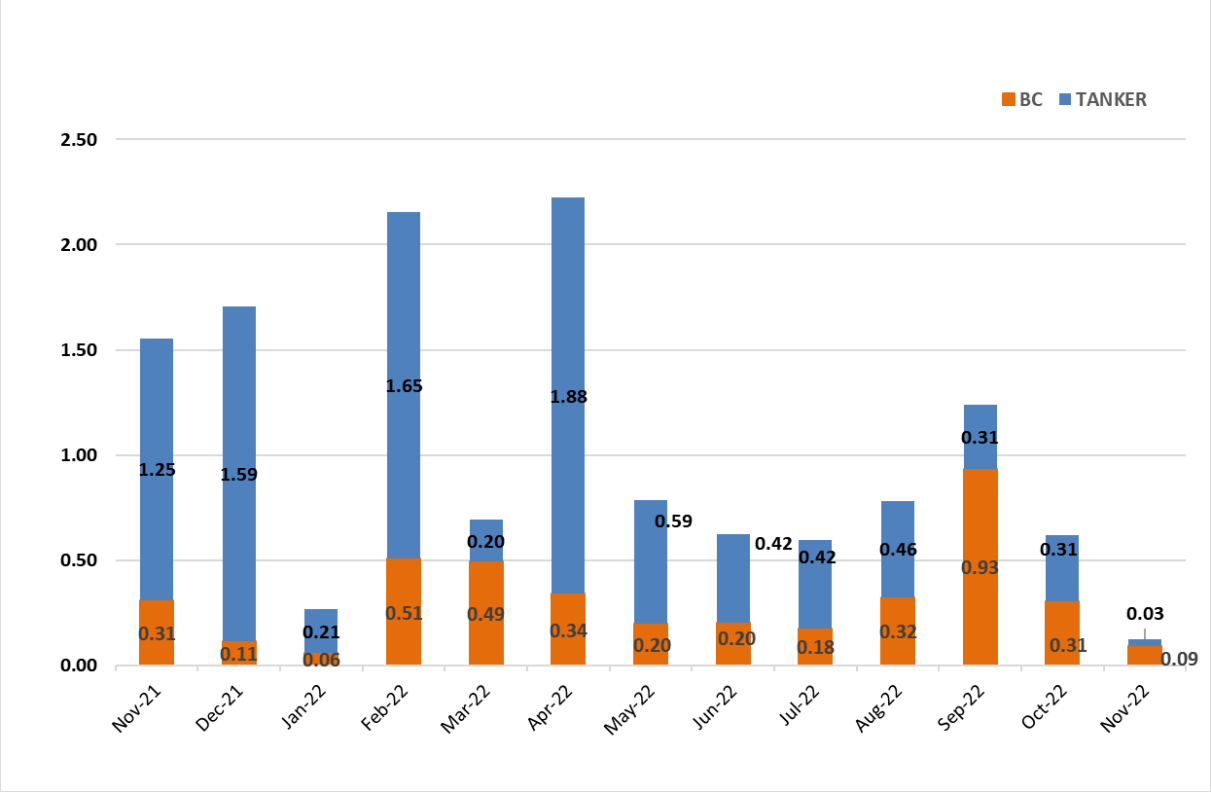
Ⅳ.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11		2022.11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1.25	27	0.03	-97.3%	1	-96.3%
BC	15.61	164	6.34	123*	0.31	7	0.09	-70.5%	2	-71.4%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Ⅳ.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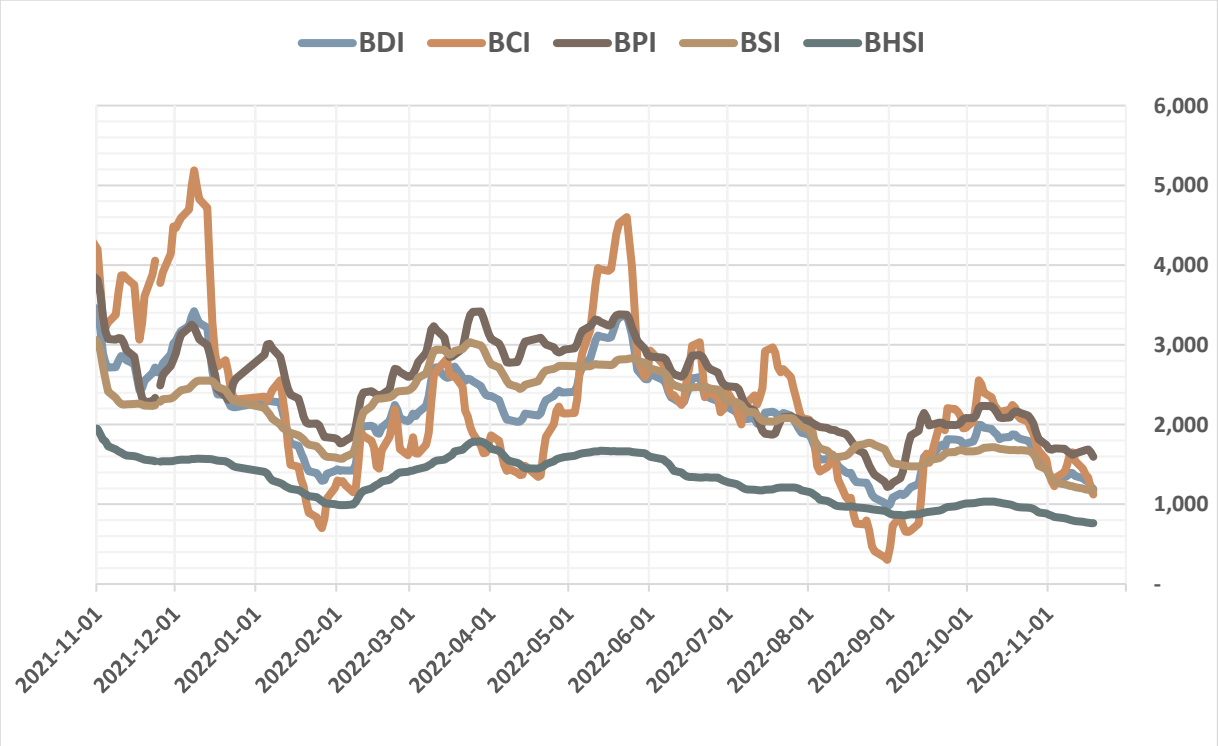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TIAN YU 2	22,271	5,002	1989	JAPAN	MITSU	560	BANGLADESHI
GC	CURACAO PEARL	42,913	10,965	1984	KOREA	B&W	585	INDIA

Ⅴ.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2-11-18	2022-11-11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189	1,355	▼166.00	5,650	965
BCI	1,122	1,544	▼422.00	10,485	302
BPI	1,594	1,637	▼43.00	4,328	1,217
BSI	1,170	1,213	▼43.00	3,624	1,473
BHSI	763	787	▼24.00	2,062	859



Ⅴ.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49.00	▼52.00	568.50	▼87.50	621.50	▼33.00
MGO	1044.50	▼18.50	932.00	▼60.00	968.50	▼82.00
LSMGO	1051.00	▼18.00	932.00	▼60.00	-	-
IFO380	429.00	▼4.50	409.50	▼24.00	402.50	▼28.50

❖기준일 : 11 월 18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2-11-18	2022-11-11	CHANGE
미국 USD	1338.40	1370.10	▼31.70
영국 GBP	1587.81	1601.78	▼13.97
유로 EUR	1387.18	1396.68	▼9.50
중국 CNY	187.99	188.87	▼0.88
일본 JPY (100)	954.30	966.39	▼12.09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Ⅵ. ISSUE & TREND

[시사 상식] FTX 파산 사태

◆ 한때 세계 3 위에 달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 가 2022 년 11 월 파산 신청을 했다.

FTX 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 규모는 66 조 원을 넘고, 채권자는 10 만 명을 웃돈다. 가상화폐 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이라고 알려졌다.

FTX 는 불과 10 개월 전인 1 월까지만 해도 4 억 달러(5 천 200 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320 억 달러(42 조 2 천억 원)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던 코인 거래소다.

하지만 FTX 계열사 알라메다의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된 뒤 고객이 자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겪었다. 이에 FTX 는 자금 인출을 동결하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FTX 인수를 검토하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FTX 는 94 억 달러(12 조 4 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하자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 2001 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엔론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가 투입됐지만 혀를 내둘렀다.

FTX 의 이번 파산 신청은 '코인판 리먼 사태'이자 '엔론 사태'로 불릴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TX 와 어떤 형태로든 금융 거래를 한 이해 당사자는 벤처캐피털과 연기금, 코인업체는 물론 개인투자자와 유명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가장 취약한 당사자는 개미투자자다. 코인 거래를 위해 FTX 에 돈을 예치해뒀던 개인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몽땅 날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출 처 : 연합인포맥스]

Ⅶ.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President_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nP snp@stlkorea.com	**Jack Kim (이사 김종수)** Director Tel. 070-7771-6411	**Nova Cha (차혜정)** Team member Tel. 070-7771-6409
Address: 101-13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LOBAL	President _ Marino Hwang (대표이사 황재웅) Tel. 070-7771-6400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상무 김현진)** Managing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혜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 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Hayden Son (대리 손호영)**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01
Tel. +82-2-776-0840 (Rep.) | Email: seoul@stlkorea.com | website: www.stlkorea.com Address: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ww.stlgtour.com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진행**	T. 061-247-0331 T. 010-2777-4027 www.stlyacht.com academy@stlyacht.com